

2026년 6월 10일

#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 명목 GDP가 말해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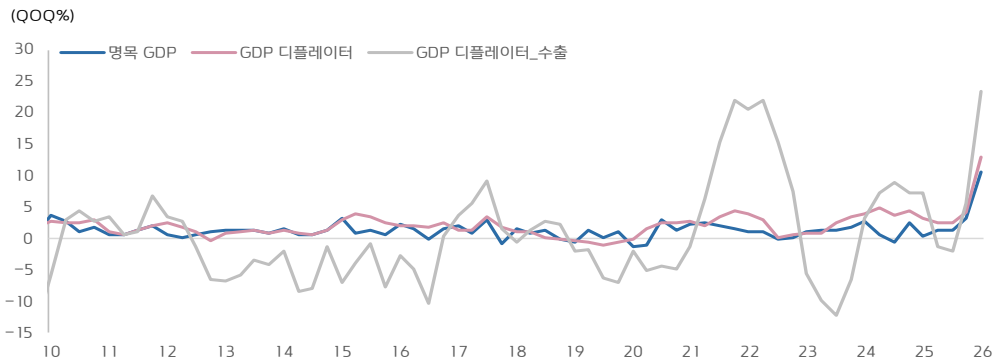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실질 성장과 명목 소득 측면에서 모두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로 잠정치(1.7%)를 상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개선되면서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다.

특히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증가하며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하면서 명목 GDP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는데, 이는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수출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수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1%에 그친 반면,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수출 디플레이터는 23.5% 급등했다. 국내 물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가운데 수출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명목 GDP 증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가계부채 등은 통상 명목 GDP 대비 비율로 평가되는데, 분모인 명목 GDP가 빠르게 증가하면 동일한 부채 규모에서도 관련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명목 GDP 확대는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완화하고, 가계부채의 GDP 대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긍정적이다. 이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부담을 완화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를 뒷받침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반도체 중심의 성장 편중과 양극화 심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다만 1분기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성장 모멘텀과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보다 성장 회복과 금융안정에 보다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총수요 확대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논의의 명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 한국 명목 GDP와 디플레이터



---

## Macro Snapshot

---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